

‘초고령’ 전남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소홀

대한민국 고령화인구비율 최고인 ‘초고령사회’ 전남이 노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고령화인구비율은 23.3%로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고령화인구비율 20%)에 진입했음에도 전남도의 노인보호구역 지정률은 전국 꼴찌로 노인 보호를 위한 안전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내 노인복지시설 대비 노인보호구역 지정율은 1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전남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관·노인생활체육시설·노인주

노인보호시설 436곳 중 49곳 만 지정 ‘전국 최하위’ 단체장 인식 미흡...상인·주민 반대 등 여론도 ‘한뿔’ 광주, 보호구역 40.63% 지정...8대 대도시 중 4번째

거북지시설은 총 436곳이지만 불과 49곳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전남이 노인보호구역 지정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데 반해, 충남(18.9%)은 고령인구비율이 전남보다 크게 낮음에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율이 116.3%나 돼 대조를 이뤘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도내에서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장애인거주시설이 65곳이 되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광주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율은 40.63%

로 8대 대도시 가운데 네번째였다. 전국 평균 26.17%보다는 높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은 시설 기관장이 시장·도지사 등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안전상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주변 도로의 통행 속도가 제한되고 횡단보도 설치 및 주차가 불가능해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교통 전문가들은 먼저 노인보호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수준이 미흡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상인들과 주민들이 꺼려하는 것이 지정률 저하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자체와 경찰청은 노인 보호자의 사고다발지역 및 노인이용시설 등 생활권 영역의 도로 주변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 개선해야 한다”며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구역을 법으로 제한된 시설 이외에 야외활동 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홍보가 잘 안돼, 신청 여부를 모르는 기관장들이 많다.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지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매년 노인보호구역을 20곳씩 늘리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시 북구 ‘투명 마스크’ 배포 이유는

청각장애인 위해 2000장 구입...민원부서 등 우선 공급

광주시 북구가 광주지역 지자체 최초로 입모양과 표정을 볼 수 있는 ‘투명 마스크’를 구입해 배포한다.

6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 마스크 2000매를 구입한다.

이번 투명마스크 구매는 오는 13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에 앞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마련됐다.

청각장애인과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는 수화와 함께 입모양과 얼굴 표정을 읽어야 하지만, 기존 마스크는 얼굴을 가려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북구는 투명마스크를 민원부서 및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포, 청각장애인들이 공무원들의 입모양을 보고 대화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시특별교부금(1400만원)으로 투명 마스크를 구매해 절반을 청각장애인협회(1000매)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28개 동, 민원여권과, 세무과, 복지교육과, 교통행정과 등 민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아직 투명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배포 후 효과와 반응을 보고, 구매를 늘려갈 예정이라는 게 북구의 계획이다. 한편 북구에 등록된 청각 장애인 3099명(중증 722명, 경증 2377명)에 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시민 인권강좌’ 개강 매주 화요일 무료

전남대학교가 2020년 ‘함께하는 시민 인권강좌’를 진행한다.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여러 사회적 이슈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인권 인식을 넓히며,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함께하는 시민 인권강좌’를 무료로 진행한다.

이달 6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남대 박물관 4층 시청각실에서 주제 강연과 영화상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실시간 동영상 강연이 동시에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가 편리하도록 했으며, 전남도와 연계해 전남지역민과도 실시간 동영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강사는 이병환 원광대 동북아연구소 교수를 비롯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무용가 홍신자, 독립연구자 정태인,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송경동 시인(희망버스 기획자), 이영재 한양대 연구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김창기 원장(생각과 마음의원),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또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의 이조훈 감독을 초청해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에 매료된 유학생들

호남대 한국어학과가 ‘제574주년 한글날’을 앞두고 6일 오전 대학 현명관(5호관) 5507강의실에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유학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남도의 아름다운 시 읊고 따라 쓰기’ 행사에서 유학생들이 시를 예고 백에 쓰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대, 올 2학기 비대면 수업 진행

실습과목 25명 이하 ‘대면’

광주대학교가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을 비대면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단, 일부 실험·실습·실기과목 등은 교수와 학생들의 협의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뒤, 25명 이하로 대면 수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대는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대표들과 코로나19 관련 2학기 수업 운영

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대는 지역과 교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개강을 2주 연기한 바 있다. 또 인구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명절 기간 중의 감염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추석 이후인 1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 방침은 지난 8월 31일 열린 학생대표들과의 1차 간담회에서 비대면 수업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빠른 결정

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려졌다.

비대면 수업은 모든 학부(과)에 해당되며, 실시간 화상수업(Zoom) 또는 e-캠퍼스를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 수업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과 관련, 학생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청소년 정치 참여 국제 세미나

광주시교육청, 9일 오후 4시 DJ센터...온라인 진행

광주시교육청이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공동체, 시민, 그리고 청소년 정치참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어린이 청소년 주제회의’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9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다.

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장인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포럼 홈페이지와 ‘유튜브 교육청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정치참여’를 주제로 ‘핀란드 청소년 정치참여(한국 교원대 서현수 교수)’와 ‘독일 청소년 정치교육(독일 함부르크주 정치교육원 엔스 휘트만 부대표)’ 사례를 살펴본다. 또

‘국내 청소년 참여권 운동의 경험과 과제(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은선상임활동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 시의원(광주시의회 임미란 교육문화위원), 민주시민교육 전문가(전남대 강구섭 교수), 청소년(광주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 오영준) 등 각 분야 대표의 지정 토론 및 청중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경미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라는 과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이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를 모색하고, 청소년 시민의 권리확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지역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7일부터 10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진행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

아침 기온 ‘뚝’ 평년보다 3도 낮은 7도

7일 광주·전남지역의 아침최저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낮은 7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아침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1~23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년 아침최저기온(10~16도)보다 3도 가량 낮은 수치다. 반면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전남 지역은 북한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구름 많겠다.

기상청은 지리산과 무등산 등 산지와 일부 내륙지역(구례·곡성·화순)에 서리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